



독도의용수비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문헌

독도의용수비대 기념

독도의용수비대 신문

독도의용수비대 신규 단원



독도의용수비대로 영입 되었다. 독도의용수비대에 신규 단원으로서는 나의 각오를 밝히겠다.

이 땅을 지켜온 선배들의 용기와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긴다. 바위 하나, 물결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임하겠다. 조용한 경계 속에서도 항상 깨어 있는 눈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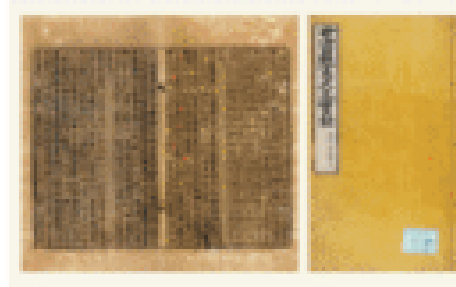
나는 국토를 지키는 사명감을 넘어, 후손에게 떳떳한 역사를 물려주는 일이라 믿는다. 외로운 바다 위에서 흔들림 없이 내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오늘, 독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독도의용수비대 활동 소식



독도의용수비대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일본의 침탈 시도에 맞서 독도를 지키는 민간 수비대이다. 1954년 11월 21일, 일본 순시선의 무단 상륙을 박격포 등으로 격퇴한 전투가 '독도대첩'으로 불린다. 이날을 기념해 매년 추모식과 기념행사가 열리며, 그 정신은 기념관과 교육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역사적 증거들



세종 15년(1433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한 섬"이라 기록돼 있다.

이 기록은 조선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인식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했음을 보여주는 국가 공인 자료이며,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였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이메일 주소 입력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세요.

이메일로 전송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수호한 독도의용수비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적 독도 수호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교육과 홍보, 기념행사를 통해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을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된 기념 시설이다. 전시와 교육을 통해 독도의 역사와 수호 정신을 전달하며, 국민의 독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철 대장

한국광복군 제3지대장을 지낸 홍순철 지사는 조국 해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숨은 영웅이다. 중국 관내에서 활동하며 광복군의 조직 확대와 무장 투쟁에 헌신했다.

그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상하이, 충칭 등지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광복군의 군사훈련을 담당하고 대원 모집에 앞장서는 등 실제적인 전투력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미군 OSS와의 합동작전인 '국내진공작전'에도 참여할 인물이었지만, 해방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광복 후, 그는 고향에 돌아와 조용히 생을 마감했으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의 공적은 오랜 세월 동안 묻혀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야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며 진정한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홍순철, 그는 말없이 조국을 위해 싸운 진짜 군인이었다.